

감귤, 비만억제 효과 탁월

체중 14.5%, 복부지방함량 5.9% 감소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소장 서호덕)와 제주대학교 수의대 이영재 교수팀은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감귤이 비만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17%는 비만환자로 증가하고, 특히 복부비만과 소아비만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예로부터 감귤껍질은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며, 감귤껍질을 먹으면 체중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왔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가 없어 이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팀은 고지방 사료만 섭취한 쥐와 고지방 사료와 감귤사료를 먹인 쥐를 2개월간 비교 실험한 결과 고지방+감귤사료를 먹인 쥐가 고지방사료만 먹인 쥐에 비하여 체중은 14.5%(435→372g), 복부지방 함량은 5.9%(3.9→1.6g) 감소

하였다. 고지방 사료만 섭취한 쥐는 정상쥐에 비해 고환이 20~30% 축소(정상고환의 70~80% 크기)되었으며, 고지방+감귤사료를 동시에 먹인 쥐는 고환크기가 85%~95%까지 회복되었다.

또한, 고지방 사료만 섭취한 쥐와 고지방 사료와 감귤사료를 먹인 쥐를 2개월간 비교 실험한 결과 고지방+감귤사료를 먹인 쥐가 고지방사료만 먹인 쥐에 비하여 콜레스테롤 함량이 29%(78.8mg/dl→56mg/dl) 줄어들었으며 혈압도 145mmHg에서 130mmHg으로 강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고지방 사료만 섭취한 쥐의 간은 정상쥐에 비해 지방간이 95%로 만연하는데, 고지방+감귤사료를 동시에 먹인 쥐는 정상쥐의 지방간상태로 회복되었다.

관동대 명지병원, '환자권리장전' 선포식 인격적 대우 등 9대 권리 제정



병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된 『환자권리장전』은 전문에 『명지병원은 믿음·소망·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환자 중심의 아름다운 병원』임을 전제하고 『모든 환자가 건강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9개항의 환자권리를 제정, 선언 한다』고 환자권리장전 제정 및 선포취지가 밝혀져 있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병원장 김병길)은 2005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 오전 8시30분 병원 대강당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9개 항의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 날 한동관 관동대 부총장과 김병길 병원장을 비롯한 800여

이런에 명지병원에서 제정한 환자 9대 권리는 △인격적 대우 △성실하고 적절한 진료와 시술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의 권리 △새로운 의학적 시도 및 교육 참여 △환경 보호 △진료상의 비

밀 보호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 보호 △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 등이다. 명지병원 김병길 병원장을 비롯한 800여 임직원들은 이번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에서 『병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증상 및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만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번 환자권리장전 제정 선포식을 계기로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갖춰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동대 명지병원은 이날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에 이어 2005년도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달리는 앰블런스서 환자 정보 전송 가능 연세의대 개발... 심전도, 혈압상태 등

연세의대 이동형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개발센터(소장 유선국, 이하 센터)는 최근 달리는 앰블런스에서 심전도·혈압·엑스레이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휴대용 응급의료 정보시스템과 각종 휴대용 응급 장비로 구성된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응급의료센터에서 이송 중 환자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며, 이송 중 환자의 응급 상태를 병원에 미리 전달해 사전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응급 환자 후송 중 응급차량에서 모니터링 된 환자 생체 데이터를 병원 응급실

등에 전송해, 이송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제어실 역할도 수행하게 하였다.

연세대 의과대학 의공학교실을 주축으로 연세대 공대 및 보건과학대·성균관대 공대·한양대 공대 등 대학측과 소프트넷·케이티메디 등의 기업 등이 참여해 개발된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은 첨단 통신 기술을 통해 응급의료센터와 구급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원격진료를 가능케 해준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본격화되면 현재 119 구조대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나, 환자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게 된다.

경희의료원장에 이봉암 교수 선임



〈이봉암 교수〉

경희대학교는 1월 1일부로 제3대 의무부총장 겸 12대 경희의료원장에 이봉암 교수

를 선임했다.

또한 종합기획조정실장 장성구 비뇨기과 교수, 부속병원장에 김영설 내분비내과 교수, 치대병원

장 김여갑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동서의대학원장에는 박동석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를 각각 발령했으며, 신설되는 행정처장에 윤덕보 종합기획조정실장을 전보 발령했다.

신임 이봉암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부산의대(69년), 미국 하버드의대(82년), 코넬의대(85년)에서 연수를 받았고, 대한소아신경의과학회 회장(96년) 등을 역임했다.

月刊 成人病

등록번호 서울 라-07526(1980. 2. 18 등록/ 2001. 7. 27변경)

발행인 유동준 편집인 유형준 편집국장 이강찬 인쇄인 함영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인병예방협회

우편번호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51-19

총무부 588-1461

팩스 588-1460

편집부 588-1462

mail@acdp.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acdp.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무료 배포

국립암센터 연구원 초빙



국립암센터는 국민의 암발생률 및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가에서 설립한 암 연구, 진료 및 교육 전문 기관이며 금번 10,000여명의 첨단 연구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세계 초일류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박사급 연구원 총 60여분을 초빙합니다.

- 지원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우) 411-76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국립암센터 총무팀
- 접수기간 : 적임자 선발 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nc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